

## 지방자치·종합

## ■ 지방선거 핫코너

## 이용섭 “사회적 일자리 창출 힘써야”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21일 “광주에서 주당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이 2005년 10.6%에서 2009년 14.2%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해 33.3%로 늘어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 아무리 고용이 늘어나도 소득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난실 “광주, 빗물 순환도시 만들 것”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빗물 순환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빗물을 잘 활용해 물 부족도 해결하고, 각 가정의 수도요금 절감과 함께 광주시의 물값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광주시를 ‘빗물 순환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김장환 “기술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을 돋기 위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지역 중·고교에서 매년 1천300명 안팎의 중도 탈락학생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배려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이 절실히”면서 “기존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창종 21일 선거사무소 개소

유창종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가 21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담양군 담양읍 침진리 담양문화회관 맞은편 종 애벌딩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선거사무 관계자와 지지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유 후보는 개소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군민 대통합 시대를 열고 담양이 대한민국의 10대 부자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 “영암군수 후보 경선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영암군민들이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학동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앞에서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김원배·김재원·전동평씨 등 영암군수 예비후보 3명은 시민공천 배심원제 적용을 요구해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임호경 화순군수 예비후보 등록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21일 화순군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는 갈라진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화합하고, 화순군의 발전방안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는 축제의 정”이라며 “화순군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했던 정책과 공약들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 박병학 도교육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6·2 지방선거 전남도교육의원 제1 선거구(목포·완도·해남·진도·신안)에 출마하는 박병학 전남도교육위원이 20일 목포시 용당동 2호광장 인근 건물에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박 위원은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장환·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희망이 넘치고 건강한 전남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남이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 선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 민주 광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민주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공모가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21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심위는 전날 제3차 회의를 갖고 광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후보자들은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후보자 추천신청서, 서약서, 의정활동계획서, 병적증명서, 재산신고서 등을 광주시당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공모일정은 추후 공심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 이명자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시의원 남구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이명자 광주시의원이 지난 20일 남구 월산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과 이용섭 국회의원, 정동채·양형일·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 정병문 장애인총연합 회장, 이재홍 지역장애인회장, 5월 어머니회 안성례 관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개소식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 광주 동구청장 후보 3명 ‘적격’

민주당 시당은 21일 광주 동구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유태명 동구청장, 임홍재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조영복 전 동구의회 의장 등에 대한 공심위 후보자 면접 심사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당은 오는 22일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다음달 3일 동구문화센터에서 국민참여경선을 갖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李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 광주·전남 출신 한명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통일부 차관에 엄종식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지식경제부 1차관에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 환경부차관에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노동부 차관에 이제필 노동부 노사정책실장, 관세청장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중소기업청장에 김동선 대통령실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됐다.

이번에 내정된 차관급 인사는 모두 해당 부처 공무원 출신으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2명(엄종식, 문정호), 영남 2명(안현호·경남 함안, 이재필·울산), 충청 1명(윤영선·충남 보령), 강원 1명(김동선·강원 영월)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 여려 필 요한 과정 등 검토하다 보면 한달 이상 업무 착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심하면서 겸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속 인사의 경우 청장급 인사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4부 2청 차관급 프로필 /

## 엄종식 통일부 차관



25년 경력의 ‘통일부 맨’으로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이라는 평. 정책 기획과장, 교류협력국 총괄과장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1급 자리인 청와대 통일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서울(51) ▲연세대 행정학과 ▲행사 25회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 안현호 지경부 1차관



선이 굵고 리더십이 있으며 조직 내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다. 과감한 업무추진력과 전문성으로 연구개발(R&D) 체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경남(53) ▲서울대 무역학과 ▲행정고시 25회 ▲지경부 기획조정실장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 문정호 환경부 차관



공직생활 30년의 절반 가까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보내고서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망이 두터워 2002년 환경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선정한 ‘맑고 깨끗한 상시’ 5명에 포함됐다. ▲서울(54)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24회) ▲환경부 공보관 ▲나동강 유역환경청장

## 이채필 노동부 차관



행사 25회 출신으로 노동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노동행정 관료.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둔 노동부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울산 울주(54) ▲영남대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 윤영선 관세청장



세제 전문 관료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적절한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회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및 국제에서도 폭넓은 인간관계로 마땅발로 통한다. ▲충남(53) ▲성균관대 행정고시 23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김동선 중기청장



통상전문가로 2008년부터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말 UAE 원전 수주 김 청장의 숨은 노력이 배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55) ▲고려대 무역학과 ▲행정고시 25회 ▲상공부 국제협력관실 ▲통상산업부 OECD 대표부 ▲산자부 미주협력과장 ▲대통령실 비서관

